

CURRICULUM VITAE

김미경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학력]

1989	한양대학교 이학사
1992	한양대학교 이학석사
1996	한양대학교 이학박사

[경력]

1990-1996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연구원
1996-1998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박사후
1998-2001	지역사회연구소 연구교수
2001-2003	Research fellow, Harvard School of Public Health

[관심분야]

Diet and Cardiometabolic condition; systems epidemiologic approach; precision public health

[논문]

1. Prospective Associations between Cumulative Average Intake of Flavonoids and Hypertension Risk in the Cardiovascular Disease Association Study (CAVAS). *Nutrients* 2023,15:1186
2. Empirically identified dietary patterns and metabolic syndrome risk in a prospective cohort study: The Cardiovascular Disease Association Study. *Clinical Nutrition* 2022, 41:2156-2162
3.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dietary atherogenic index using common carotid artery-intima-media thickness: A food frequency questionnaire-based longitudinal study in Korean adults. *Nutrition Research* 2022, 104:55-65
4. Genome-wide gene and serum ferritin interaction in the development of type 2 diabetes in adults aged 40 years or older. *NMCD* 2022, 32:231-240
5. Sex-specific associations of habitual intake of soy protein and isoflavones with risk of type 2 diabetes. *Clinical Nutrition* 2021, 40:127-136

심혈관 위험 관리에서 식사의 보건학적 관점

김미경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세계보건기구는 비감염성질환에 대한 글로벌 액션플랜 2013-2020을 수립, 2025년까지 만성질환으로 인한 조기 사망률 25% 감소를 목표로 설정하고 회원국 대상 국가 단위 정책 수립 및 성과지표 관리를 촉구해 왔다. 또한 2015년 UN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2030 Agenda를 채택하고 17개 목표, 169개 세부목표를 설정하여 발표하였다. 17개 목표 중 3번째 목표인 “Good Health and Well-being” 소목표에는 비감염성질환(심혈관질환, 암, 당뇨, 만성호흡기질환)으로 인한 조기 사망률 1/3을 감소시킨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따라 질병관리청에서는 매년 ‘만성질환 현황과 이슈’에서 심뇌혈관질환을 포함하여 질병 부담이 높은 주요 만성질환의 현황과 이슈를 분석 발표하고 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2년 1년간 한국인 주요 사망원인 중 순환계통 질환 사망률은 인구 10만명당 134.7명이었으며, 심장 질환(65.8명), 뇌혈관 질환(49.6명), 고혈압성 질환(15.1명) 순이었다. 2021년 대비 모두 증가 결과를 보였지만 World health statistics 결과에 따르면 2012년 대비 2019년 30-70세에서 사망률은 21.5% 감소한 결과

를 보였다. 질병관리청에서 발표한 2019년 한국인의 조기 사망으로 인한 질병부담의 주요 기여 질환의 1순위는 뇌혈관질환 질환이었고 허혈성 심질환 또한 4위를 차지했고 조기사망과 장애로 인한 질병부담에 식이위험은 위험요인 중 흡연, 고혈당, 알코올에 이어 4위를 차지한다고 발표했다. 따라서 심혈관질환 발생 이전 단계에서 수정가능한 효과적 개입 도구를 찾고 적용하는 것은 적극적 예방전략으로 가치가 높다.

식은 이러한 적극적 예방전략 도구로 적합하고 서구 인구집단에서 심혈관질환발생과 연관된 식이요인에 대한 많은 연구결과가 발표되었지만 첫째, 식생활은 하나의 문화로 표현될 만큼 문화적 특성이 강하여 한국인에 직접 적용하기 어렵고, 둘째, 식이 요인들이 서로 강한 상관성이 있기 때문에 식이 자체의 복잡성(dietary complexity)을 고려한 분석이 필요하며, 또한, 이에 더하여 평균적 대상자에 국한하지 않는 정밀 보건학으로의 관점의 전환 또한 필요하다. 이 강좌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여 심혈관질환 예방을 위한 식이요인을 다룬다.